

### 중국, 원자바오 소망은 '고품질 우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자국에서 '고품질 우유'를 생산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혀 중국에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로 뿌리 깊은지를 드러냈다. 8월 29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張家口)시에서 농업 생산 현장을 시찰한 원 총리는 목장과 유업회사를 찾아가 "나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서 고급 유제품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3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마땅히 자신의 브랜드를 육성해 고품질의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중국의 유제품은 국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선도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 100% 조사료 급여 배합사료 무급여 낙농 화제

일본 북해도 낙농가가 100% 목초와 비트 펄프만을 급여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낙농을 경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48세인 이 낙농가는 '02년도부터 가족 중심 낙농을 시작하였는데 미국산 곡물을 급여하여 생산하는 우유가 순수 국산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배합사료를 서서히 삭감하여 '09년 5월 방목위주로 전환하면서 완전하게 배합사료 급여를 중단하였다. 당초 배합사료 급여시에는 두당 연간 9천1백kg정도의 우유를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5천kg내외로 북해도 평균 8천50kg에도 못미치지만 '09년부터 자가 우유공장을 설치하여 저온살균으로 방목우유를 시판하고 아이스크림 원료유로 판매하여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육두수는 착유우 36두 등 51두로 50헥타의 초지 중 14ha를 방목전용지로 활용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방목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목초 사일리지 50~60kg을 급여하며 소량의 비트 펄프만을 급여하고 있다. 한편 이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는 900밀리엔 950엔, 180밀리는 200엔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탄닌산 급여시 젖소 분뇨 악취 획기적 감소

감, 도토리, 밤 등에 많이 함유된 탄닌산을 사료에 첨가하여 젖소에 급여시 젖소분뇨 악취를 3분의 1까지 줄일수 있다고 미국 학자가 발표하였다.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 소속의 이연구자는 탄닌산 사료 첨가시 위장내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하여 분뇨 악취의 원인인 요소의 생성을 감소시키며 유단백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전국화학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목장내 악취의 원인은 사료내 단백질 분해시 생성되어 젖소 오줌으로 방출되는 암모니아에서 발생하는데 젖소는 1일 3.5갤론(13리터)의 오줌을 배출하고 1년에 1천3백갤론(4천9백리터)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낙농자조금으로 대규모 수출지원단 한국 파견

한국이 수요증가, 자국산 우유 부족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압박등으로 미국산 최대 치즈 수입국으로 멕시코와 경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미국 유제품 수출지원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을 활용한 이번 방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여하게 되는데 미국 유제품 수출위원회가 주도하여 미국 유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한국내 44%의 시장 점유율로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치고 최대 치즈 공급국가이며 유청단백질과 버터지방의 10대 수출국인 동시에 유당의 주요 수출국으로 지난 '06년에서 지난해 까지 미국산 유제품 수출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 1억 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15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분유와 연유제품을 제외하고 3천5백만 파운드 이상의 미국산 유제품 수출이 관세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